

# 위기의 호랑이, 1위다운 면모 보여라

## T 타이거즈 전망대

잘 달려온 '호랑이 군단'의 진짜 시즌은 지금부터다.

KIA 타이거즈의 1위 독주에 비상이 걸렸다. 몇 차례 1위 독주에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긴 연패 없이 꾸준하게 전개되던 KIA의 승수 쌓기에 제동이 걸렸고, 두산 베어스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면서 1.5게임차 밖에서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8월 31일과 9월 1일에는 챔피언스필드에서 호랑이와 곰의 명운이 걸린 맞대결도 진행된다.

KIA는 26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6연패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22일 롯데전서 연패 끊기에 실패했던 양현종이 27일에는 연승을 잇지 못하면서 지난주 KIA의 성적은 1승 4패 1 무승부로 돌아섰다.

최근 곁을 이터지기는 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시즌이었다. 5강 후보 정도라면 언급되던 KIA는 4월 12일 처음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린 뒤 지금까지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핵타와 양현종이라는 막강한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임기영이라는 셋발이 등장하면서 마운드에 힘이 실렸고, 최형우가

## KIA 마운드·타선·유격수 총체적 난국...지난주 1승 4패

### 1.5게임차 두산과 격돌...선수들 절실함·집중력 필요한 때

'새로운 해결사'가 된 타선에는 타격 1위 김선빈이 이끄는 '키스톤 콤비'가 있었다. '신입 호랑이' 이명기와 비나디나의 때서 움도 1위 질주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후반기 위기가 찾아왔다. 임기영, 정용운의 부진 이탈로 인한 선발진 공백, 타선의 집단 난조 그리고 유격수 백업 고민이 겹쳤다. 문제는 예견됐던 위기라는 데 있다.

시즌 시작 때부터 KIA는 선발 고민을 했었다. 윤 종계 임기영과 정용운이 전반기 큰 역할을 했지만, 선발로서는 첫 시즌이었던 변수 많은 카드였다. 그리고 후반기 두 사람의 부진이 계속됐지만, 위기에 대비한 차선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선발 카드 대신 배합찬이라는 깜짝 카드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결국 양현종-핵타-팻딘을 빼고는 언제 어디에 누가 투입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마운드가 돌아가고 있다. 선발진을 불펜에 투입하는 변칙 운영의 결과도 좋지 않는 등 마운드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타선의 난조는 시즌을 보내다 보면 예고 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난제다. 하지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그리고 팀 안팎의 정세를 고려하면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반기의 '믿음'과는 다른 '새바림'이 필요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두산이 턱 밑까지 왔다.

깜짝 마운드와 정제된 타선의 엇박자 속에 '유격수 백업'이라는 고민도 현실화 됐다.

김선빈은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김선빈을 빼면 유격수가 없다. 강한울의 이적과 박찬호의 입대로 시즌 전부터 '유격수 백업' 찾기는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됐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나가지만 유격수 실패만 이뤄지고 있다.

전전후 수비수 고창혁을 대신해 2015년 외야수로 전향했던 '이적생' 유재신을 부러부라 유격수로 변신시키는 파격적인 도전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연속 실패와 뒤끝이 짙었던 연패 탈출이었다. 후반기 부진에

## ■ KBO리그 팀순위 (28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15	70	1	44	0.614	0.0
2	두산	118	69	3	46	0.600	1.5
3	NC	120	68	1	51	0.571	4.5
4	롯데	121	64	2	55	0.538	8.5
5	넥센	121	62	1	58	0.517	11.0
6	SK	122	62	1	59	0.512	11.5
7	LG	114	57	2	55	0.509	12.0
8	한화	116	49	1	66	0.426	21.5
9	삼성	120	46	4	70	0.397	25.0
10	kt	117	37	0	80	0.316	34.5

는 수비 싸움의 열세도 한몫을 하고 있다. 1경기, 1승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KIA의 오늘이다.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치밀한 계산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위기, 선수들에게는 절실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연패 기간 팬들은 멀뚱히 파울 타구를 지켜보고, 낮아온 상황에서 진루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돌아서는 선수들의 모습에 큰 실망을 했다.

'1위'다운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KIA는 새로운 한주 대구 원정에 이어 안방에서 두산에 상대한 뒤, 고척으로 가 위기 돌파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APBC 대회 예비엔트리 42명 발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 KIA 김윤동 등 5명 포함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회의 예비엔트리 42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KIA에서는 김윤동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8일 KBO 5층 회의실에서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되는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대회의 예비엔트리 45명 중 와일드카드 3명을 제외한 4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KIA에서는 김윤동(우완), 김명찬(좌완), 임기영(사이드암) 등 투수 3명과 포수 한승택, 내야수 최원준 등 5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회의에는 초대 전임 감독으로 선임된 선동열(사진) 감독을 비롯하여 이강철, 이종범, 유지현, 정민철, 진갑용, 김재현, 코치 등 코칭스태프 7명 전원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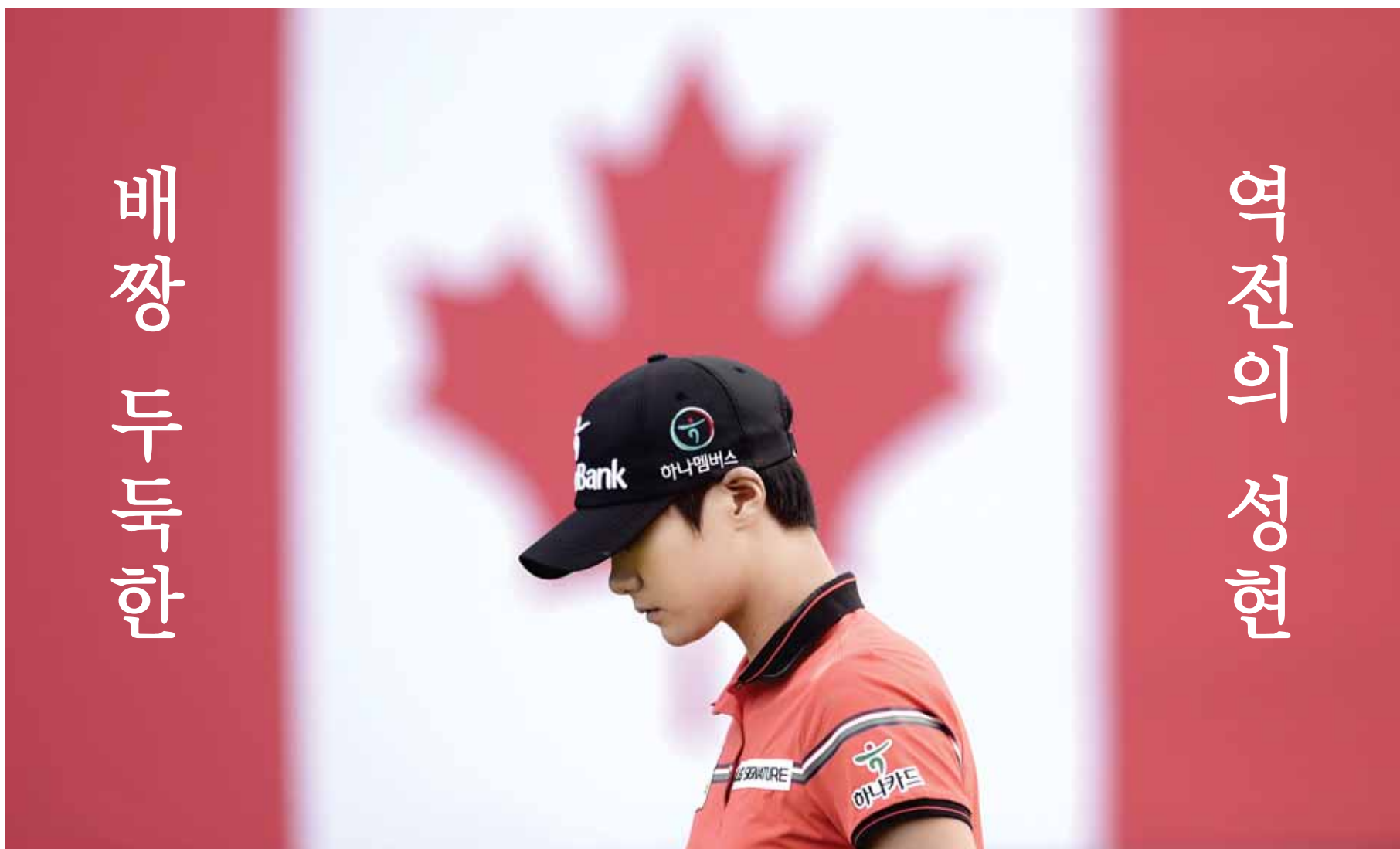
KBO는 42명의 명단을 예비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31일에 맞춰 이번 대회의 주최국인 일본야구기구(NPB)에 전달할 예정이다. 예비 엔트리 명단은 25명의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10월 10일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 엔트리도 제출 이후 주최국의 승인을 얻으면 10월 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은 아시아 야구 발전과 교류를 통한 야구 세계화를 목표로 KBO와 함께 일본야구기구(NPB), 대만프로야구리그(CPBL) 등 아시아 3개 프로야구 기구가 신선했던 국가대항전으로,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다.

출전 자격은 24세 이하(2017 대회 기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3년 차 이하의 선수로 제한됐다. 와일드카드 3명은 3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짱 두둑한

역전의 성현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헛트&골프클럽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성현이 캐나다 국기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헛트&골프클럽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우승자 박성현이 캐나다 기마 경관 모자를 쓴 채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성현, LPGA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도 역전 우승 4라운드 버디 7개 몰아치며 4타자 뒤집고 시즌 2승

'슈퍼 루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새로운 '역전의 명수'로 떠올랐다.

박성현은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열린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2위 이미림(27)을 2타 차로 따돌린 박성현은 경기를 먼저 마친 뒤 한동안은 연습 그린에서 연장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챔피언 조가 18번 홀 경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우승을 낙관하고 연습을 서서히 중단할 정도로 여유있는 우승이었다.

하지만 전날 3라운드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박성현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3라운드까지 6언더파를 기록한 박성현은 공동 선두였던 모 마틴(미국), 니콜 라르센(덴마크)에게 4타 뒤진 공동 12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성현은 '웬만하지 않은 성격'을 4라운드에 적어내며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몰아치며 오히려 2위에 2타 앞선 우승을 일궈낸 것이다.

8일부터 10번 홀까지 3연속 버디로 단독 선두에 올랐지만 3라운드까지 선두에 1타 뒤진 3위였던 전인지(23) 역시 8, 9, 10번 홀 연속 버디로 다시 1타 차 단독 1위에 오르는 접전이 펼쳐졌다.

박성현은 이후 전인지의 12번 홀 보기로 공동 선두를 이뤘고, 곧바로 16번 홀에서 '역전 버디'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다. 전인지와는 국내에서 함께 활약할 때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 사이였기에 둘의 우승 경쟁은 더욱 흥미진진했다.

3라운드까지 10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경기를 끝내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던 박성현은 18번 홀(파5)에서 시원한 '투온'에 이어 가볍게 버디를 잡아 2타 차로 달아났다. 반면 이후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전인지는 18번 홀에서 이글을 해야 연장에 갈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샷이 병크로 들어가며 오히려 1타를 잃었다.

박성현은 이날 페어웨이 적중률 84.6%(11/13), 그린 적중률 83.3%(15/18), 퍼트 수 28개 등으로 앞선 1~3라운드에 비해 훨씬 좋은 경기 지표를 나타냈다. 3라운드까지는 페어웨이 적중률 61.5%(24/39), 그린 적중률 74.1%(40/54), 평균 퍼트 수 29.7개였다.

박성현은 7월 US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할 때도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공동 58위로 컷 통과를 걱정할 판이었지만 끝내 마지막 날 우승까지 차지했다. 2라운드까지도 선두에 7타 뒤졌고, 3라운드부터 만회를 시작했지만 최종라운드를 앞두고는 선두와 3타 차이가 났다. 결국 그때도 마지막 날 평산산(중국), 아마추어 최혜진(18)과 14번 홀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다가 15, 17번 홀 징검다리 버디로 우승했다.

당시 15번 홀 7m 긴 버디 퍼트로 단독 선두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도 16번 홀에서 약 4m 버디로 단독 1위가 됐다.

올해 LPGA 투어에 뛰어난 신인이 두드러진 배경을 앞세워 메이저 대회 첫 승, 상급 1위에 오른 이번 대회를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하는 모습은 전 세계 골프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연합뉴스

## 한국, LPGA 최다승 보인다

### 5연승 등 시즌 13승...3승 더하면 신기록

한국 선수들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점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포함해 벌써 시즌 13승을 합작하면서 이전 '태극남자 최전성기'였던 2015년의 15승을 넘어설 기세다.

28일 '슈퍼루키' 박성현(24)이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선수들이 LPGA에서 처음으로 5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박성현의 US여자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마라톤 클래식 김인경(29), 스코티시 오픈 이미림(24), 브리티시오픈 김인경에 이어 이번 대회 박성현까지 세 선수가 우승컵 5개를 나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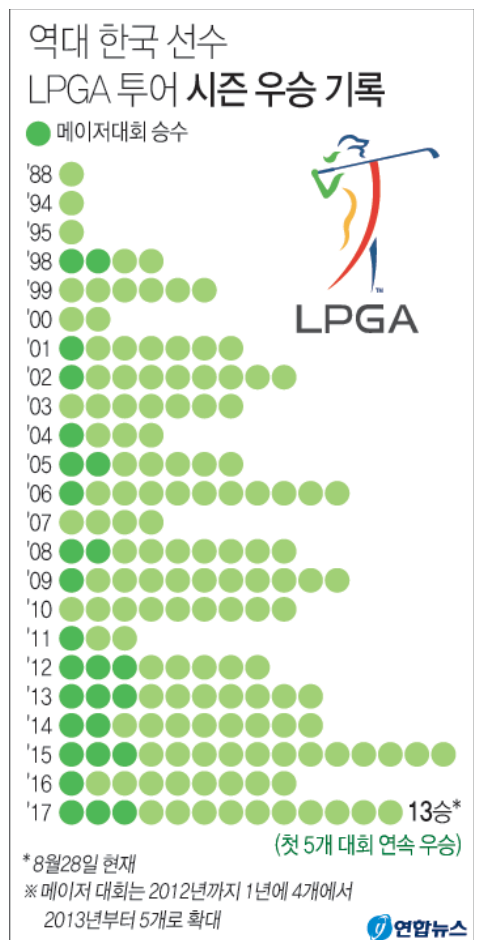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 선수들의 대항전인 솔하임컵을 제외하고 이번 시즌 열린 LPGA 투어 23개 대회 가운데 한국 선수들은 절반이 훌쩍 넘는 13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인경이 메이저 브리티시오픈을 포함해 슬라이트 클래식과 마라톤 클래식에서 3승을 수확했고, 유소연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과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ISPS 한타 호주여자오픈에서 올 시즌 태극남자 선전의 포문을 연 장하나(25)를 비롯해 양희영(28), 박인비(29), 이미림(27), 김세영(24), 이미림도 1승씩을 보냈다.

남은 11개의 대회에서 3승만 더 거두면 2015년을 뛰어넘는 LPGA 최다승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특히 '적수가 없는' 독주 양상이다.

해외 톱 랭커들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0월부터 85주 연속 세계 1위를 지켜온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이번 시즌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했다. 지난 4월 롯데 챔피언십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고 이번 캐나다 대회와 지난달 스코티시 오픈에서는 컷



탈락했다. 에리아 쭈타누간(태국)도 6월 매뉴라이프 클래식 이후 줄곧 내리막이다. 이후 6번의 대회에서 3번이나 컷 탈락의 굴욕을 맛봤다.

이들의 부진 속에 한국 선수들끼리 우승 경쟁을 벌이는 일도 잦아졌다. 이번 캐나다 여자오픈에서는 이미림이 박성현에 2타 뒤진 2위였고, 전인지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미림이 우승한 스코티시 오픈에선 허미정(29)이 공동 2위였고, US오픈에서는 아마추어 최혜진(18)이 박성현과 우승 경쟁을 벌인 데 이어 허미정과 유소연이 공동 3위였다.

선수층이 두꺼워져 한국 선수들이 번갈아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시즌의 한국 선수들의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다. 박인비, 김인경 등 박세리(40)의 활약에 자극받아 입문한 이른바 '세리 키즈'들이 여전히 정상급 실력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LPGA 신인인 박성현과 프로 데뷔를 앞둔 최혜진이 가세했다.

/연합뉴스